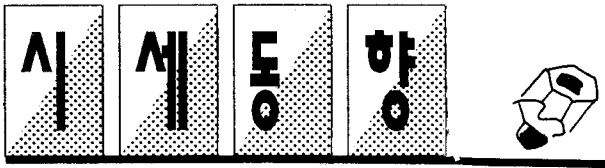


**산약** 자연산은 근당 도매시세가 1만9천원선으로 지난해 1만7천원 선에 비해 다소 오른 가격. 재배산은 여전히 6천5백~7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당분간 보합세 유지할 듯.

**산수유** 지방에서 거래되고 있는 산수유 도매시세는 근당 평균 5천5백원 선이다. 거래부진한 상황에서 당분간 오합세 유지할 전망이다.

**구기자** 국내산 구기자는 현재 도매시세로 근당 6천3백원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수입산은 그 절반가격인 3천5백원 선이다.



**황기** 다소 오름세를 보이는듯 하던 황기 시세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보합세다. 근당 도매시세가 1년근이 8천5백~9천원, 3년근은 1만6천~2만원, 6년근은 3만~4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백출** 불경기속에서 그나마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 지난해 6천5백~7천원선에 거래되던 백출이 현재 근당 8천원 도매시세로 유통되고 있다. 수입산은 3천5백원 선. 백출은 국내 생산량이 부족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갈근** 현재 거래되고 있는 국산갈근 도매시세는 근당 1천2백원 선이며 수입산은 3백~5백원 선이다. 수입산과 국산은 외형적으로 거의 구분이 어려울 뿐 아니라 가격차이가 심해 국내산은 소비자들로 부터 거의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귀** 신당귀는 근당 7천~8천원 선에 막당귀는 근당 5천원선.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세 또한 별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백지** 현재 거래되고 있는 백지 근당 도매시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2천2백~2천5백원선이며 당분간 보합세 유지할 전망이다.

**강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근당 6천원이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강활 도매시세. 6천원 선에서 당분간 보합세 유지할 전망이다.

# 약초유래를 찾아서

## 두충

## 원래 이름은 杜仲(두중)

두충나무는 세계적으로 1과 1屬 1種인 식물로서 학명은 *Eucommia ulmoides* Oliver이다. 중국 서북부 원산이며 중국에서는 泗川, 貴州가 주산지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야산이나 밭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높이가 8~10m 정도 자라는 낙엽성 교목이다. 잎은 장타원형으로 표면이 윤택하고 어긋나며 암그루와 수그루가 따로 있는데 4~5월경에 담록색의 작은꽃이 모여 핀다. 열매는 장타원형으로 10월에 노랗게 익는다. 두충나무는 신비스럽게도 식물체 어느 부위든지 자르

(道)를 통하였다』하여 그 사람의 성과 이름을 나무의 이름으로 하였다 한다.

또 다른 전설을 보면 중국의 후한시대(後漢時代) 道先人들의 섭생중에는 육식으로 사슴고기를 즐겨 먹었고, 차로는 두충차를 많이 마셨다고 한다. 이는 사슴이 동물중에서 十二辰(12支,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신성한 동물이었기 때문이라 하며, 또한 당시 사람들은 두충(杜仲)을 먹어야 『도를 깨우친다(得道)』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두충을 『思仙』이라는



음용하면 효과가 좋다.

우리나라의 차(茶)문화는 삼국시대부터 발달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남부지방에서 재배되고 있는 차나무가 신라 흥덕왕 三年(서기 828년) 중국 당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김대겸(金大兼)이 처음 가져와 심기 시작한 것이 시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의 차문화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중국인들이 차를 즐겨 마시게 된 연유에는 『도를 깨우친다』는 믿음에 의해서 일 것이다.

성(姓)이 두(杜)씨이고 이름이 중(仲)이라는 사람이 이 나무의 껍질과 잎으로 차를 달여 마시고 「도(道)를 통하였다」하여

면 고무실같은 물질이 나온다. 흔히 수피를 벗겨 건조한 후 혈압강하, 강장, 이뇨, 진정 등의 용도로 쓴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 의하면 『杜仲』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옛날에는 『두중』으로 불리어 졌으나 언제부터인지 발음상 『두충』으로 변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두충을 『思仲』 『思仙』 『鬼仙木』 『玉絲皮』 등의 別名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원래의 이름 杜仲은 옛날 중국에 성(姓)이 두(杜)씨이고 이름이 중(仲)이라는 사람이 이 나무의 껍질과 잎으로 차(茶)를 달여 마시고 『도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였으며 줄기, 잎, 뿌리, 열매등의 모든 조직속에 흰 면사(綿絲: 일종의 실)를 함유하여 『絲綿木』, 『玉絲皮』 등으로 불리워지기도 하였다고 한다.

수피에는 6.5%의 gutta percha 및 pinosresinol-di-β diglucoside가 있고, 잎에 2~3%, 근피에 12%, 과실에 15%의 gutta percha가 함유되었으며 강장, 혈압강하, 이뇨작용이 있다.

차나무잎(茶葉)과 비슷한 성분이 많고 탄닌 1.5%, 비타민 C가 63mg/g 정도 들어 있어 잎을 건조하여 녹차로 만들어

### 필자역력

**성명 : 안상득**  
한국 인삼 연초 연구소 선임연구원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 교수  
현. 강원대학교 자원식물개발학과 교수  
저서 : 약용식물 재배, 자원식물학 개론, 백두산 자원식물도감의 논문 다수

# 중앙 회원 가입 안내

국산한약재는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소중한 전통의약입니다.

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중앙회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상

농촌지도기관, 영농법인, 작목반, 생약분야단체, 학계, 제약 및 식품회사, 우리생약에 관해 관심있는 모든분

### 혜택

- 1) 생약재배에 관한 기술지도
- 2) 생약계약재배 및 수매알선
- 3) 입산채취증 발급
- 4) 생약의 수출입 알선
- 5) 생약분야 정보제공
- 6) 한국생약보(시세표 포함) 제공

### 구비서류

- 1) 가입서 양식(본부에 비치)
- 2) 주민등록등본 1통
- 3) 증명사진 2매
- 4) 회비 :
  - 개인 : 월 3,000원×12개월 = 36,000원
  - 가입비 10,000원 합계 46,000원
  - 단체 : 월 10,000원×12개월 = 120,000원
  - 가입비 10,000원 합계 130,000원

가입문의 : 협회사무국 전화(02) 967-8133